



못막은 한국영화의 흐름

ACC·광주극장·독립영화관 28일~12월4일 '한국 나쁜영화 100년' 전
김수용·이장호·장선우·김동원 감독 등 관객과 대화...36편 무료 상영

100년 전 1919년 10월27일 서울시 종로 단성사에서 연세극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가 개봉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로 영화계가 올해를 한국 영화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이유다.

ACC 시네마테크가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획전을 준비했다. ACC 시네마테크는 광주극장·광주독립영화관·인디포럼과 공동으로 '한국 나쁜영화 100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영화사 100년을 축하한다. 모두 36편이 상영되는 이번 기획전은 28일부터 12월4일까지 ACC 극장3,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열린다.

한국영화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유신정권, 광주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한국의 암흑기를 겪어왔다. 기획전은 감독의 작가정신과 미학을 통해 시대에 저항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검열을 받거나 제도권 바깥으로 배제된 영화들을 재조명한다. 또 감독들의 사적 영화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한 한국영화의 이면들을 알아보는 기획이기도 하다.

상영작들은 높은 작품성과 감독의 작가정신과 미학이 드러난 영화들로 현재 한국의 대표영화로 손꼽히는 작품부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작품들까지 다양하다. 또 한국영화 역사에서 독립영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김수용·이장호·장선우·임상수·김동원·정성일 등 한국 영화계 거장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각 작품 상영 후 무대인사 및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면서 작품들의 뒷이야기와 당시의 상황들을 함께 얘기할 시간을 갖는다. 또한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평론가들이 자리를 함께해 작품의 의의 등을 함께 설명해 줄 예정이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4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등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어 '상계동 올림픽', '송환'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김동원 감독의 무대인사가 이어지고 개막작으로는 김 감독의 '상계동 올림픽'이 상영된다.

29일 첫 상영작은 1936년 제작된 양주남 감독의 '미몽'이다. (오전 11시 ACC극장 3).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이자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서울의 풍경과 신여성에 대한 대중의 관점 등을 담았다. 기획전의 대미를 장식할 영화는 서원태 감독의 '싱킹블루'다. (12월4일 오후 3시 ACC 극장3)

장선우 감독의 작품 '서울예수' (1986), '나쁜영화' (1997), '거짓말' (1999)은 각각 30일 오후 1시·3시30분·7시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서울예수'는 정신병원을 탈출해 서울로 온 자칭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서울은 축복의 땅으로 약속된다. 또 그 여자로 인해 예수의 약속도 실현된다. '나쁜영화'는 가솔, 본드, 도둑질 등을 일삼는 아이들의 모습과 길바닥에서 사는 행려의 이야기가 서로 얽혀있는 작품이다.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2004)도 스크린에 오른다.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살해 당일을 긴박하게 묘사했다.

29일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영화제, 출판 등을 진행해온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인디포럼 단편1·2', '인디포럼 장편 1·2'를 준비했다. 이 시간에는 '빛나는 거짓', '아메리칸 엘리', '다우징',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자살변주', '골든 라이트' 등이 상영된다.

이밖에 '미망인' (1955), '피아골' (1955), '반금련' (1981), '중광의 허튼소리' (1986), '상계동 올림픽' (1988) 등 다양한 작품들이 스크린에 오른다. 기획전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장호 감독 '바람불어 좋은날'



장선우 감독 '나쁜영화'



양주남 감독 '미몽'

ACC 시네마테크,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김수용 감독 이장호 감독 장선우 감독

■ 감독 토크 일정

일시	상영작	감독	장소	
28일	오후 4시	상계동 올림픽	김동원	ACC 극장3
	오후 1시10분	디어 엘리펀트	이창민	
29일	오후 4시	황홀경	김소영	ACC 극장3
	오후 7시	그때 그 사람들	임상수	
30일	오전 11시	상계동 올림픽, 내 친구 정일우	김동원	광주독립영화관
	오후 2시	빛나는 거짓	채기	광주극장
12월1일	오후 3시30분-7시	나쁜영화, 거짓말	장선우	광주극장
	오전 11시	레드 헌트	조성봉	광주독립영화관
12월2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늑대의 중력, 백두 번째 구름	정성일	ACC 극장3
	오후 1시	중광의 허튼소리	김수용	광주극장
12월3일	오후 3시10분	골든 라이트	임철민	광주독립영화관
	오후 7시	자살변주, 고갈	김국	
12월4일	오후 7시	고갈	장리우	ACC 극장3
	오후 1시10분	아메리칸 엘리	김동원	
12월4일	오후 4시	바람불어 좋은날	이장호	ACC 극장3
	오후 3시	싱킹 블루	서원태	



감독 일깨워 '다시 태어나는 빛' 이이남 전, 12월3일까지 은암미술관

작품 영상 속엔 흰눈 내리는 겨울을 지나 온갖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다. 꽃들이 만개한 초록빛 산하에 두 남자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들은 손을 잡고 판문점 '금단의 선'을 넘어선다. 2018년 4월 27일이다. 마치 '월리를 찾아라'처럼 남한과 북한의 대표 상징물 등 작품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경제 정선의 '금강대산'과 '단발령 망금강'을 재해석한 이 작품 '평화의 김복'은 2018년 남북정상 회담장에 전시됐었다.

이이남 초대전 '다시 태어나는 빛'이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오는 12월3일까지 열린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로 모두 9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작 '다시 태어나는 빛'은 에너지가 어둠을 밝히는 순간을 담은 작품으로 6개의 프로젝트에서 쏟아내는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다양한 느낌을 전달한다. '빛'의 고전적 가치를 재조명해 인간의 근본과 진리에 대해 탐구한 작품으로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일깨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는 빛'을 이야기한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쇠라의 '아니에르 물놀이'를 재해석한 작품은 기존 영상작품과는 차별화를 보이는 평면작품이다. 전통 한지인 장지에 서양의 회화를 출력한 시리트로, 빛의 차이를 통해 미묘한 색의 변화를 보이는, 붉은색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연작을 나란히 배치했다.

정선의 '박연폭포'를 디지털 속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재해석한 높이 4.9m의 '박연폭포'는 전시장 1층과 2층을 관통하며 설치돼 쏟아지는 물줄기의 역동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 '만화-병풍-병풍II-상상된 경계들'은 경제 정선과 강세황의 고전회화를 한 폭의 병풍으로 연출해 구성한 작품이다.

2층에서 만나는 영상작품은 평안한 휴식을 전해주다. 지난 9월 테이트 모던에서 열렸던 '2019 런던 동아시아영화제'에 참가했을 당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작으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근위병 교대식 현장의 햇빛 아래 나뭇잎의 그림자가 아름다워 그 모습을 영상 촬영하고 그래픽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완성했다.

이 작가는 "이번 신작들은 어둠과 밝음을 모두 갖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어둠에 빠졌을 때 새로운 빛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라며 "트라우마나 어려운 시기의 아픔들을 빛으로 다시 승화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서울에서도 지난 21일부터 전시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초청으로 서울시미술관 마곡문화관에서 2020년 4월까지 '이이남, 빛의 조우'전을 개최한다. 마곡문화관은 1928년 건축돼 과거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됐으며 현재 등록문화재 제363호로 지정된 공간이다.

전시작은 모두 다섯 점으로 특히 양천 현령을 지내며 서울 강서 지역 풍경을 역작으로 남겼던 경제 정선의 '양천팔경첩'을 재해석한 신작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그밖에 경제정선의 '박연폭포',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동·서양 회화명작을 결합, 재창조한 '경제정선 그늘'을 만나고, '그곳에 가고 싶다' 등도 전시된다. 12월 6일에는 아티스트 토크도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상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